

S#1 전구가 빛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거리 (밤)

빛나는 전구들과 걸어다니는 커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속을 후줄근하게 입고 걸어가는 유진.

(유진 Na) 불빛이 반짝이고, 길거리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속 큰 트리를 쳐다보며)

(유진 Na)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Fade Out) (유진 Na) 기댈 구석이 하나도 없다.

[제목 타이틀 나옴]

S#2 도서관

유진의 옆에 가득 쌓여있는 책들, 인공눈물 통들과, 초콜릿 껍질들 (insert)

밤을 새면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유진

(유진 Na) 공무원에 합격하면 인생 핀다던데

요즘은 마냥 그런지도 모르겠다

말들이 너무 많아져서 말이지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부를 하는 유진

(유진 Na) 머리가 똑똑하면 몸이 편하다는데

난 몸도 멍청한가보다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자세다.

이러다가 자리에 앉으면 또 잠이 오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계속 조는 유진.

졸다가 책상에 머리를 박고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반쯤 정신이 나간 듯, 허공에 입모양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다시 앉는다.

S#2-1 도서관 계단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단어책을 보고 단어를 암기하는 유진.
혼잣말로 계속 반복하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힘들어하는 유진.
단어장을 집어던지며, 벽에다가 몸을 굴리며 머리를 싸맨다.

S#3 카페 (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진. 손님에게 주문을 받으면서도 정신은 다른 곳에 팔려있다.

유진 : (멍 때리다가) 아 죄송합니다
주문 어떤 걸로 하신다고 하셨죠?

설거지를 하고, 컵들을 정리하고, 쓸고 닦고 하는 유진의 모습. (점프샷으로)

문을 잠구고 나오면서 한숨을 쉬고,
골목길로 걸어가며 집으로 가는 유진.

(유진 Na)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더 이상 낼 힘도 없다. 그저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모든 게

S#4 유진의 집 (규형 자취방)

집에 도착한 유진,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서
집에 와서 가방을 놓고 걸옷을 의자에 대충 걸어둔다. 집 안은 깔끔하지만 특색이 없으며. 옷을 걸어두면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벽에 붙어있는 것이 보인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통으로 뜯어서 마시며, 침대에 드러눕는다.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쭉 보면서 사람들의 소식을 본다. 다 잘나고 즐거워보인다.

침대에 누웠다가 불이 꺼져있는 트리를 발견하고, 트리의 불을 켜다.
켜진 트리를 한참 바라본다.
그리고 소원을 빌듯이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한다.

(유진 속마음 na) “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

(Fade Out)

다음 날 일어난 유진,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핸드폰을 보는데
사장님께 카카오톡이 와있다.
(유진아 이번달 월급 미리 넣었어. 요즘 안색이 안 좋아보이던데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좀 더 보냈다. 파이팅 해!)
핸드폰을 보고 놀라며 웃는 유진, 어젯밤의 기도가 통했나 싶은 마음에 트리를 슬쩍 본다.
그리고 아직 켜져있는 트리.

S#5 편의점

가기 전에 간단히 뭐라도 간단히 먹으려고 들어간 편의점. 빵과 우유를 집어든 유진.
결제를 하려고 계산대에 갔는데 편의점 사장님께서 작은 초코바를 주신다.

편의점 사장: 아까 어떤 손님이 1+1인데 안 가져갔어요.
학생 먹어요.

유진: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빵은 가방에, 초코바는 주머니에 넣은채 편의점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뛰어나는 유진.

S#6 지하철 역 앞

곧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벤트를 한다.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해보라고도 한다.
그때 유진에게 다가 온 한 사람.

이벤트 직원: 안녕하세요~ 저희 곧 새해라 운세 확인해보시라고 포춘쿠키 나눠드리고 있어요~ 하나 받아주세요!

유진 : 아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보더니 급히 쿠키를 주머니에 넣고 지나간다.

S#7 지하철 역 안

로또 한 장을 가진 채 역 안으로 들어와 결과를 확인해보는 유진.

핸드폰 화면엔 5000원 당첨이라고 나와있다.

웃으면서 개찰구로 들어가는 유진.

(유진 Na) 항상 로또 사기만 하면 팡이었는데
5000원이라도 당첨이 됐다
소원을 빌고 난 뒤 귀신 같이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 안에 자판기로 음료를 뽑아마시는 유진.

그때 습관처럼 동전칸에 손을 넣었는데 500원짜리가 있다.

신이 난 유진은 캔 음료가 아닌 페트 음료를 뽑아마시면서 좋아한다.

(유진 속마음 Na) 아니 이거 진짜... 미쳤는데...?

S#8 유진의 집 (규형 자취방)

방에 급하게 와서 가방과 옷을 던져두고 켜져있는 트리로 다가가는 유진.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급하게 소원을 빈다.

(유진 속마음 na) “제가 곧 필기시험을 보거든요, 이거 일단 붙게 해주시고
지금도 너무 좋지만... 음 더 큰 행복을 주세요!” (다급하고 신난 목소리로)

눈을 뜨고 트리를 쳐다보는 유진.

행복에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기대감을 가진채 웃는다. (C.U)

S#9 학원 강의실 (정보관 강의실, 계단 많은)

모의평가 결과를 순서대로 발표하는 선생님. 하지만 유진의 이름은 계속해서 불리지 않는데.
유진은 점점 초조해진다. 다리를 떨고 손을 물어 뜯으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박유진.

유진 : 네...

선생님: 저번보다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 곧 필기시험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진 :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될리가 없어요.

선생님 : 나도 유진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싶어서 그래.

뭐가 문제인 거야? 필기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해.

열심히 하는 거 맞고 잘하는 거 맞는데 너무 안주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너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이해 돼?

유진 :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유진. 트리에다가 기도도 했고, 분명 잘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계속 생각에 빠진 유진.

S#10 집 앞 벤치

혼자서 맥주 한 캔을 뜯어서 마시는 유진.

생각에 빠진 채 허공을 향해 보고 있다.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전에 받은 포춘쿠키가 있다.

포춘쿠키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 소중한입니다. “

쿠키를 보고 빙썩있는 유진.

(유진 na) 그렇다. 내 행복은 내가 갇아먹고 있었다.

(Fade Out)

S#11 유진의 집 (규형 자취방)

집에 들어온 유진, 켜져있는 트리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제 유진은 깨달았다. 나의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것임을.

(유진 na) 세상이 나를 등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은 나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세상도 날 사랑할 수 있다.

반복되는 이런 일상도 나의 일부니까!

켜져있는 트리의 전원을 끈다.

트리의 전원이 꺼지고, 유진은 세상을 가진 것만 같이 환하게 웃는다.

(Fade Out)

(크레딧과 함께 나오는 쿠키영상)

S#12 학원 게시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다. 그 안엔 필기시험 결과가 벽에 크게 붙어있다.

사람들 뒤에서 결과를 찾아보는 유진. 필기시험에 합격한 유진의 이름이 붙어있다.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유진은 씨익 웃으며 영상이 마무리 된다. (보류)